

## ‘노인 폭행’ 정신질환 경찰 권총 차고 근무 했었다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갑에 채워 마구 폭행했던 경찰관(본보 17일자 6면)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총기를 다루고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등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손모(62)씨를 폭행한 김모(32) 순경은 S병원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뒤 2003년 7월 31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복귀, 나주 병황치안센터와 담양 중앙지구대·고서 파출소 등에서 근무해 왔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들은 38구경 권총과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지급받아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김 순경이 지구대 근무 당시 정신 질환 증세가 악화됐다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로 인해 경찰 안팎에서는 정신병 치료 경력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성격장애가 있거나 채무관계가 심각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나·다 등급으로 분류해 상급자들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 있다. 김 순경도 복직 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가 최근 경찰청장 등 3개의 표창을 받은 뒤 지난 6월 관리대상 직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 순경은 ‘조울증’이 심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남경찰청은 지난 16일 김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최권일·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기술신보 190억 사기대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신모(44·서유위조책)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안모(45·대출알선책)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뒤 위조된 신용보증서를 목인해 주고 사기 대출을 도와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은행 지점장 출신 정모(53)씨도 함께 구속했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 정보통신 업체를 차린 뒤 전자화폐 개발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받는 등 6개 은행에서 19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기술신보의 기술심사와 은행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술신보 영업팀 직원과 정씨 등은 은행지점장에게 정기적으로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하고 계모임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짐통더위에 소음공해 ‘왕짜증’

## 아파트 공사장·유형업소 주변 주민들 “창문 못열고 잠못이뤄” 규제강화 호소

‘짐통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지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인근 공사장이나 유형가 등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공사장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낮 동안에 70dB이하로 규제, 문을 열고 지내는 하절기에는 ‘체감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H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남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불과 50

m 떨어진 호반베르디움 2차 신축현장에서 들려오는 굉음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공사장을 찾아가 일시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청에 호소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17일에도 소음 측정치가 74dB로 기준치(70dB)를 조금 넘겼다가 60만 원의 벌금·작업시간 조정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인근 S아파트 주민들도 지난달 28일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

음으로 정서불안·공부방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음 측정치가 68dB에 그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M아파트 이모(45)씨는 “밤새 야외 영업하는 인근 술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술집 업무에 야간 야외 영업 중단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여름철이면 소음공해 관련이 급증하지만, 계절별 단속 기준과 대상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동구의 경우 올해 접수된 13건의 소음과해 민원 중 9건(69.2%), 서구는 49건 중 31건(63.2%)이 6~8월에 집중됐다. 남구도 86건 중 51건(59.3%), 북구는 131건 중 93건(70.9%)이 같은 시기에 접수됐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은 조식·주간·심야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주간의 경우 주거·복지지역·학교·병원 등의 소음은 ▲확성기(옥외설치 80dB·옥내설치 55dB) ▲공사장 70dB ▲공장·사업장 55dB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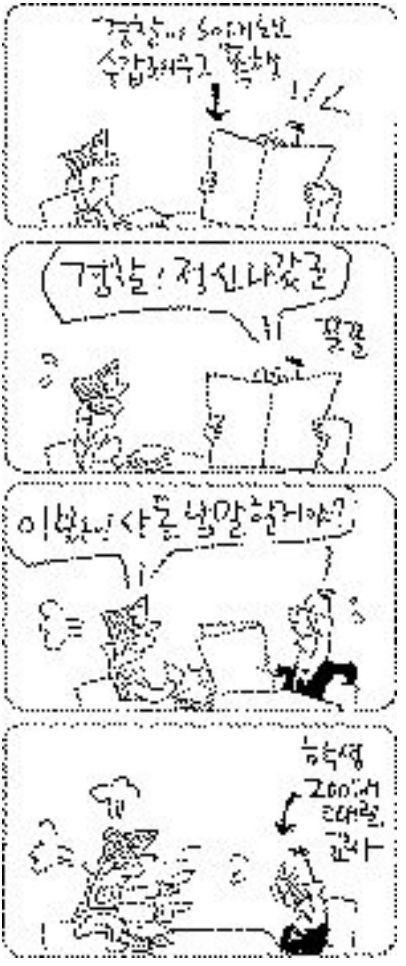
전남대 오일권 교수(기계시스템공학부)는 “현행 규제 기준인 70~75dB 정도의 소음이 인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다”며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 소음에 강하게 노출되는 여름철 등을 고려해 계절별 소음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귀 막고 살아야” 17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굉음이 들려오자 인근 아파트 아이들이 귀를 틀어막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원침 (6910) 김장동



연제2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세대 중 35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 허위 부재자 투표 벌금 50만원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부재자 투표를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곡성군 A리 이장 오모(50)씨 등 3명의 마을 이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유도회 승단비 유용 의혹

### 5년동안 4천여만원

광주시 유도회가 지난 5년동안 4천여만원의 승단 수입금을 유용한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가 17일 입수한 ‘대한유도회 승단 수수료 내역’ 및 ‘광주시 체육회 세입·세출 결산서’ 등에 따르면 ‘광주시 유도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모두 1천419명의 승단 심사를 하면서 승단비로 1억1천406만원을 받았다.

시 유도회는 이 가운데 ‘대한유도회’에 2천526만9천500원을 승단 수수료로 보내고, 나머지 8천879만500원은 유도회 수입금으로 관리해야 하나, 절반이 넘는 4천6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

으로 드러났다.

시 유도회가 대의원 총회와 광주시체육회에 제출한 세입 결산서에는 5년 동안 유도회가 받은 승단 수입금이 실제 수입금의 48%에 불과한 4천260만원인 것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전 광주시 유도회 간부는 “매년 승단 수입금의 일부가 유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유도회 관계자는 “회계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5년간의 승단비 수입액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다르며 특히 2004년분은 체육회 결산서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목포경찰서 화장실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30대 남자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17일 오전 7시25분께 목포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내 화장실에서 이모(38·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씨가 청소용 세제를 마시고 심을 중인 것을 담당 경찰관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목포시 산전동 S 효포집에서 부인 한모(여·39·목포시 용당동)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김모(47)씨에게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이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말한 뒤 동행한 담당 경찰관이 밖에서 감시하는 동안 화장실 안에 있는 청소용 세제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 직후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만 식도, 후두가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결합한 부인이 평소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오다, 이날 김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쌍다발

○남편러지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50대가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17일 오후 3시20분께 이모(52·여·수시)씨가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20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다 끝에 매달려 있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이씨의 동생(48)과 경찰·소방대원들이 뒤쫓아와 구조에 나선 것.

○이씨는 경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죽으려고 뛰어내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경 제61주년 광복절 축. 신안군, 농협, 협동조합, 산농, 화성, 건설, 대영, 신안군가거도삼부도건설, 남도환경(유), 대통산업, 전국인력사무소. 신안군 교육청,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군 산림조합, 한국전력신안지점,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무안신안지사, 무안·목포·신안 축산업협동조합, 민주평통신안군협의회, 신안농협, 북신안농협, 입자농협, 비금농협, 도초농협. 강순산, 여승오, 김복희, 최원희, 박승호, 조희영, 양윤석, 오무준, 박종순, 박석우, 김성수, 정경태, 김수남, 김형석, 박성재.